

‘임진전쟁’의 강화 교섭 Peace negotiations of "Imjin War"

아라키 가즈노리(일본 국립역사민속박물관)

발표 요지

‘임진전쟁’의 종결(1598년)에서 조일 국교회복(1607년)까지의 과정을 쓰시마 - 조선 간의 외교 교섭의 전개에 따라 고찰하고자 한다.

우선 조·일(朝·日) 간에 오갔던 외교문서 서계(書契)의 내용을 분석하고, 어떠한 언설, 논리가 강화(講和)를 이끌었는가에 대해서 검토하겠다. 예를 들면, 1601년 조선은 쓰시마의 소요시토시(宗義智)에게 서계를 보내어, ‘성인(聖人)의 마음’, ‘왕자(王者)의 도(道)’를 말하고 있다. 이는 ‘미래를 지향하고 과거를 고집하지 않는다’는 자세를 표명하고, 강화의 조건으로서 일본측의 성의와 반성을 요구한 것이다. 어제까지의 ‘불구대천(不俱戴天)’의 적과 맺는 강화를 정당화하기 위한 유교적 논리라고 할 수 있겠다. 또한 외지(外地)의 쓰시마를 ‘내지(内地)의 적자(赤子)’와 동등한 존재라고 표현하여 일본측의 군사행동을 저지할 것을 요구하였다. 조선측은 쓰시마와의 기미지배(羈縻支配) 회복을 전쟁 종결을 위한 유효한 수단으로 인식하였고, 이에 호응하듯 쓰시마측도 ‘동번(東藩)’의 입장을 표명하는 국면이 나타난다.

다음으로 조선의 기미 정책과 관련하여 조선 - 쓰시마 간 뿐만 아니라 북방의 ‘번호(藩胡)’(여진족) 문제도 함께 검토하겠다. 예를 들어 조선은 ‘번호’를 회유하기 위해 1600년에 한성(漢城)이 아닌 함흥(咸興)에서 교역을 임시로 허가하였고, 1604년에는 쓰시마에 대해서 부산포(釜山浦)에서 교역을 임시로 허가하였다. 후자는 일본인의 한성 상경의 금지 및 부산포에서 외교·무역이라는 근세 조일관계의 기본적인 형태로 전개된다. 이는 ‘번호’와 ‘동번’의 경제적 욕구에 동일하게 대응하려고 한 기미 정책의 일면이라고 할 수 있겠다.

약력

아라키 가즈노리(荒木 和憲)

2001년 규슈대학 문학부 졸업. 2006년 규슈대학 인문과학부 박사후기과정 수료. 博士(文學).

현직은 일본 국립역사민속박물관 준교수.

전문 분야는 일본중세사, 동아시아 교류사.

주요 저작 : 『中世對馬宗氏領國と朝鮮』, 山川出版社, 2007. 『對馬宗氏の中世史』, 吉川弘文館, 2017.